

한국문학번역원장 취임사 (2018. 3. 5)--김사인

1.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되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두려운 한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문학, 더 넓게는 한국어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자 동시에 최일선의 실행단위를 겸하는 곳입니다.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만,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번역출판, 작가해외파견 등의 의례적 지원사업 수준에 만족해도 좋은 소극적 기능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한국문학의 넉넉지 못한 자원을 재료로 기획과 연출, 홍보와 교류 과정을 통하여, 세계문학의 장 속에서 한국문학의 품위를 드높이는 동시에 인류의 정신적 가능성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다시 말해 한국문학, 한국어콘텐츠의 총괄적 외교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책무에 동참해볼 기회가 부족한 저에게 주어진 데 우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번역원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는 번역원과 일로 인연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제게 조언을 주신, 문학적 경향을 달리하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번역원 식구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왔는지요. 그래서 실은 얼른 만나뵙고 싶어 한동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여러분들만큼 해외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문학외교적 실무 경험을 가진 집단이 없습니다. 세계문

학 현장의 실감을 가지고 한국문학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집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한국문학 외교 분야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일하게 되었으니, 제가 전생에 복을 제법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 2.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우리의 여전히 변함없는 화두입니다. 20여년에 걸친 번역원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문학의 국제적 호환성은 그 외형과 내실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 그동안 번역원을 이끌었던 역대 원장님들과 번역원 식구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제는 아마도 지난 경험과 성취, 한계를 성찰하는 가운데 번역원의 임무와 전략을 변화된 나라 안팎의 여건을 반영하여 다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취임사를 빌어 조심히 한두 가지 생각거리를 제안합니다.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의 무대에 한국문학 작품을 하나라도 더 올리기에 바빴던 게 그동안의 형편이었다면, 20년의 성취와 경험이 축적된 이제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서 하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회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그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한국을, 한국문학을 삼을 것인가. 무엇이 한국문학다운 것인가. 이것이 결코 관념적인 질문이 아닌 절실한 물음이라는 것을

문학외교의 현장을 경험한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원은 번역이나 하면 되지 뭐 그런 문제까지’라고 의아해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문학자들이나 평론가들에게 미를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외국에 살아보면 비로소 한국이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세계문학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축적하고 있는 번역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 물음을 진지하게 물어갈 적임의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무의식중에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문학을, 그것도 엘리트 문단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을 상상하는 데 길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문학의 중요함은 큼니다만, 그러나 저는 더 넓은 범위의 ‘한국어문학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번역원 사업에는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합니다. 한반도 강역 내의 모든 문학과 해외 동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어문학, 한국적인 것을 다룬 이민 2,3세들의 현지어문학(속문 속지 혈통 등의 논란 있으나)은 광의의 한국문학으로 보는 것이, 실효적 지배 여부를 넘어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영토를 규정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이러한 전민족적 시야의 확보는 언젠가 달성해야 할 한국어 동포의 민족통합을 예비하는 노력일 뿐아니라, 빈약한 한국어 콘텐츠의 풀을 넓히는 유력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극복 과정에서 주도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전략에도 부합할 뿐아니라, 정치적 득실을 떠나 한국어 동포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막이다운 의무이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의 세계문학의 질서에 대한 성찰과 관련됩니다. 서구가 주도하는 근대문학의 질서에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된 역사적 사정으로 얼마간의 서구추수가 우리에게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역사적 치욕으로 경험될 때가 없지 않았지만, ‘동도 서기’의 슬로건 이래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고, 그 흐름은 개화, 근대화, 세계화로 이름을 바꿔가며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선부르게 무시하는 만용은 한 나라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취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미 중심의 세계문학적 질서가 갖는 한계와 편향에 대해 예민하게 깨어있고, 도덕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보다 높은 경지의 세계문학적 질서를 꿈꾸는 일 또한 우리 기관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이상을 지니면서, 동시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명예롭게 할 수 있을까. 한국어가 구현하는 사유와 감각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지구상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언어의 이웃들로부터 겸허히 배울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럼으로서 호혜와 평등의 세계문학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근본 차원에서 우리 사업들을 생각해나가려 합니다.

짧게는 지난 1백년, 길게는 수천년 동안 한국어가 치러온 다양한 영역의 다층적인 모험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시야와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국어 문학의 위엄을 회복하게 하고, 그 결실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인류의 영적 유산에 부를 더하는 것, 이 벽차지만 복된 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한국문학의 외교본부답게 장단기적으로 해나갈 일들을 차분히 토론해 보십시오.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든 조달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절박하고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의 공부도 더 깊어지고 우리 스스

로 좀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나가십시오.

한국어, 한국문학을 대표해서 그런 노력의 일선에 선 여러분들을 잘 받들어 모시라고 저를 파견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저 또한 더 나은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3.

저는 제 앞의 전임 원장님들께서 나름 나름의 문학관과 국가관 역사관을 가지고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문학의 국제적 지위가 이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분들 같은 산전수전의 경험을 가진 문화외교 역량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신 만큼 짐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문학을 복돋고 빛내는 동시에 그 성취를 세계인의 자랑과 보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소명이 여러분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말이 좀 거창해졌습시다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신임원장으로서 지난 20년에 걸쳐 구축된 번역원의 국내외 인적 역량과 시스템을 최대한 살려 가겠습니다. 이전 번역원의 성공만이 아니라 혹 있을 수 있는 실패까지 깊은 경의를 가지고 제 것으로서 엄중하게 승계하겠습니다. 실패의 경험까지가, 국가적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 성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취약 지점을 보강하고,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균형을 잡고, 필요한 새 사업을 신중하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번역원 안팎의 전문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번역원 임직원들의 귀한 역량이 다른 부수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력의 낭비인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우리의 일은 쉽지 않지만 보람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나라 안에서 누구도 쉬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번역원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보석같은 핵심 기관입니다. 동시대의 8천만 한국어 동포들을 생각하며, 한국어로 쓰고 읽으며 살아갈 우리의 후세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우울과 침체를 훌훌 털고 밝은 마음으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자고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긴 말씀은 차차 더 여쭙기로 하고 이것으로 첫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